

광주FC, 3위 지키기 포항과 '마지막 승부'



거침없던 광주FC의 기세가 꺾이면서 K리그1 최종전에서 '3위 전쟁'이 벌어진다.

광주가 지난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1 2023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광주가 전반 17분 실점을 허용했다.

전북 이동준이 시도한 헤더가 광주 골대 맞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 틈도 없이 전북의 공세가 이어졌다. 흐른 공이 골대 왼쪽에 있던 송민규에게 향했고, 송민규가 머리로 공을 떨쳤다. 그리고 전북 안현범이 바운스 된 공을 다시 헤더로 연결했고, 이내 광주 골망이 흔들렸다.

광주가 반격에 나섰다지만 정호연과 토마스의 슈팅이 상대의 수비에 막혔고, 전반 종료로 앞두고 광주가 다시 실점을 기록했다.

오른쪽에서 전북 이동준이 스톤인에 나섰고, 공이 광주 골대 앞까지 멀리 날아왔다. 문전에 있던 김승우가 머리로 공을 쳐냈지만 송민규 앞으로 공이 향했다. 슈팅이 빗나갔지만 송민규의 원발에 맞은 공이 그대로 광주 골대로 향했다. 골키퍼 김경민이 몸을 날려 공을 쳐 냈지만, 골라인을 넘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전반전이 0-2로 마무리됐다.

광주는 후반전에 골 사냥을 위해 총력전을 벌였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후반 16분 엄지성이 상대 진영에 침투해서 골키퍼를 마주했지만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다. 후반 42분에는 아론의 원발이 움직였지만 공이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결국 이날 승리로 3위를 확정하고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플레이오프 티켓을 가져가려던 광주 계획은 무산됐다. 광주가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치면서 12월 3일 열리는 파인A 그룹의 최종전은 '3위 전쟁'이 됐다.

전북 현대에 0-2 져 승점 1점차 인천도 2점 차 추격 '다크 호스' 12월 3일 최종전 무조건 이겨야 아시아 챔스 플레이오프 티켓

광주가 전북전에서 패했지만 승점 58로 3위 자리를 지켰다. 승점 3점을 가져간 전북은 승점 1점차 4위로 광주를 바짝 추격하게 됐다. 여기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광주와의 앞선 맞대결에서 2-0 승리를 가져갔던 인천은 37라운드 울산현대와의 홈경기에서도 3-1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점 차까지 좁혀왔다. 여기에 울산전 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에서도 광주와 2골 차밖에 나지 않는다.

그리고 광주전에 이어 진행된 37라운드 경기에서 포항스틸러스가 대구FC를 1-0으로 꺾으면서 준우승을 확정짓는 상황. 결국 올 시즌 최종전에서 광주, 전북, 인천이 속 마치는 순위 싸움을 전개하게 됐다.

2024-2025 ACL무대는 ACLE와 2부 리그 격인 ACL2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1, FA컵 우승팀이 ACLE 본선에 진출하도록 하면서 리그 2연패에 성공한 울산과 FA컵을 차지한 포항이 두 장의 본선 티켓을 가져간 상황. K리그1 2위 팀에게 ACLE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지만, 2위 포항이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본선을 확정짓는 만큼 3위 팀에게 플레이오프 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4위팀이 ALC2에 나가게 된다.

4위까지 '아시아 무대'에 오를 수 있지만 광주는 더 큰 무대인 ACLE를 목표로 하는 만큼 3위를 수성해야 한다.



광주FC의 정호연(오른쪽)이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1 3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이동준과 공을 다투고 있다. <광주FC 제공>

전북전이 열린 25일, 추운 날씨에도 1000명이 넘는 광주팬이 대거 원정에 나서 뜨거운 응원전을 벌였다. 이정호 감독은 응원에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최종전에서 결말을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정호 감독은 "원정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선수들도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했는데 아쉽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긍정적인 것은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할 점 개선하고, 준비할 점 준비해서 포항전 대비하겠다"며 "나는 항상 공격적이

다. 포항전도 공격적으로 하겠다. 선수들이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조금만 더 같은데 침착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고 '최후의 승부'를 이야기했다.

/전주=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희균

이희균, 광주FC 팀 최초

'유스출신 원클럽맨 100경기' 달성

K리그1 전북과 경기서 대기록 '최종전 승리하고 활짝 웃겠다'

광주FC의 이희균이 팀 최초 '유스출신 원클럽맨 100경기' 기록을 달성했다.

이희균은 지난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1 3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이희균은 경기 끝난 뒤 "100경기는 요즘 많은 선수가 하는 거라 의미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프로 1년 차 때 형들이 하는 것보고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게 돼서 신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엇보다 '구단 최초'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100경기가 돋보인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금호고 출신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발돋움 했다. 하지만 광주에서 시작해, 광주에서 100경기를 채운 유스 선수는 이희균이 처음이다.

광주 최초 유스 출신 원클럽맨 100경기 출전 기록을 장식한 이희균은 "구단 유스 최초라고 하니 그게 영광인 것 같다"며 "첫 경기가 가장 의미 있고 제일 떨려서 기억에 남는다"고 시작점을 이야기했다.

이희균은 2019년 3월 3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서울이랜드와의 개막전에서 프로 첫 발을 내디뎠다.

'금호고 듀오'로 기대를 받았던 엄원상(울산)과 나란히 프로 개막전을 치렀던 그는 프로 첫해 16경기에 나섰다. 2020년에는 단 두 경기 출전에 그쳤던 그는 올 시즌 전북전까지 33경기나 나와 2골 1도움을 기록하면 100경기를 채웠다.

이희균은 "올해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기억에 남는다. 축구 커리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바뀐 것 같다. 첫 경기를 뛰었을 때는 기대 받는 신인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믿음 있는 선수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정호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이희균은 물 만난 물고기였다.

이희균은 "신인 시절에는 경기 조금 못하면 빠지니까 자신감이 없었다. 지금 감독님은 계속 믿음을 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이정호 감독님은 내게 정말 최고의 감독님이다. 인간으로서도 존경하고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유스 최초의 주인공이 됐지만 이희균에게는 팀의 패배로 아쉬운 100경기 날이 됐다.

3위 확정을 통해 구단 첫 '아시아 무대'를 노렸던 광주는 이날 전북전 패배로 12월 3일 홈에서 치러지는 포항스틸러스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사활을 건 승부를 하게 됐다. 이희균은 최종전 승리 뒤 활짝 웃겠다는 각오다.

이희균은 "101번째 경기는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중요하다. 승리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경기 준비하고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주=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1-4 역전패... 7위로 시즌 마감

내년 시즌도 K리그2에서

전남드래곤즈에게 기적은 없었다. 전남이 부천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7위로 2023시즌을 마감했다.

전남이 26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2 39라운드 경기에서 1-4 역전패를 당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승점 53을 만들면서 6위에 자리했던 전남은 시즌 최종전이었던 이번 경기에서 승점 1점 차, 5위 부천(승점 54)과 운명의 승부를 벌였다.

전남이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전반 21분 나온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다. 부천 안재준이 역전골을 시작으로 3골을 몰아치면서 전남을 울렸다.

선제골은 전남의 차지였다.

전반 19분 발디비아가 띄어 준 공이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박태용에게 연결됐다. 슈팅하기 전에 부천 서명관에 걸려 박태용이 넘어졌고,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발디비아가 골키퍼를 속이고 골대 왼쪽을 뚫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었다.

하지만 후반 36분 전남이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허용했다.

아스나워가 페널티 지역으로 진입하던 루페타를 막으려다가 파울을 기록했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날손주니어가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초반 팽팽한 흐름이 전개됐지만 조수철과 안재준이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면서 전남을 흔들었다.

후반 15분 조수철이 하프라인에서 올린 공을 안재준이 받아 전남 진영으로 질주했다. 골키퍼 안준수가 달려 나갔지만, 골키퍼를 따돌린 안재준이 빈 골대로 공을 넣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골이 선언되면서 1-2가 됐다.

행운의 여신도 부친 편이었다. 후반 42분 조수철의 패스를 받은 안재준이 오른쪽 슈팅을 날렸고, 골대 맞은 공이 굴절돼 전남 골망을 흔들었다.

8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후반 53분 안재

준이 중원에서 공을 잡고 올라가 골키퍼 앞에서 공을 찍어 차 헤트트릭을 완성하면서, 전남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전남은 이날 패배로 마지막 희망을 살리지 못하고 내년 시즌도 K리그2에서 보내게 됐다.

한편 최종전까지 진행됐던 K리그2 우승 레이스는 김천상무의 역전극으로 끝났다.

김천상무는 이날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전반 37분 나온 김현욱의 골로 1-0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김천에 승점 1점 앞서 선두를 지켰던 부산아이파크가 충북청주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70'로 시즌을 마감했다. 반면 김천이 이날 승점 3점을 더해 '71점'을 기록하면서 역전 우승과 함께 한 시즌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우승으로 김천은 2013-2015-2021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강등 뒤 1년 만에 승격'이라는 진기록을 이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민지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챔피언십 우승

교포 선수 이민우(호주)가 호주프로골프투어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이민우는 26일 호주 브리즈번의 로열 퀸즐랜드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4개로 3언더파 68타를 쳤다. 합계 20언더파 264타를 적어낸 이민우는 호시노 리쿠야(일본·합계 17언더파 267타)의 추격을 3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민우는 지난 10월 아시안투어인 마카오 오픈 이후 한 달 만에 우승컵을 추가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활약하는 이민지(호주)의 남동생인 이민우는 DP 월드투어에서 3승, 아시안투어에서 1승을 포함해 프로 통산 4승을 기록했다.

3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이민우는 9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는 등 전반에만 4타를 줄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민우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후반 들어 보기와 버디를 번갈아 적어냈지만, 호시노도 10번홀(파4) 보기, 11번홀(파3) 버디 이후 더 이상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이민우가 호주프로골프투어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우승컵을 들고 웃고 있다. /연합뉴스